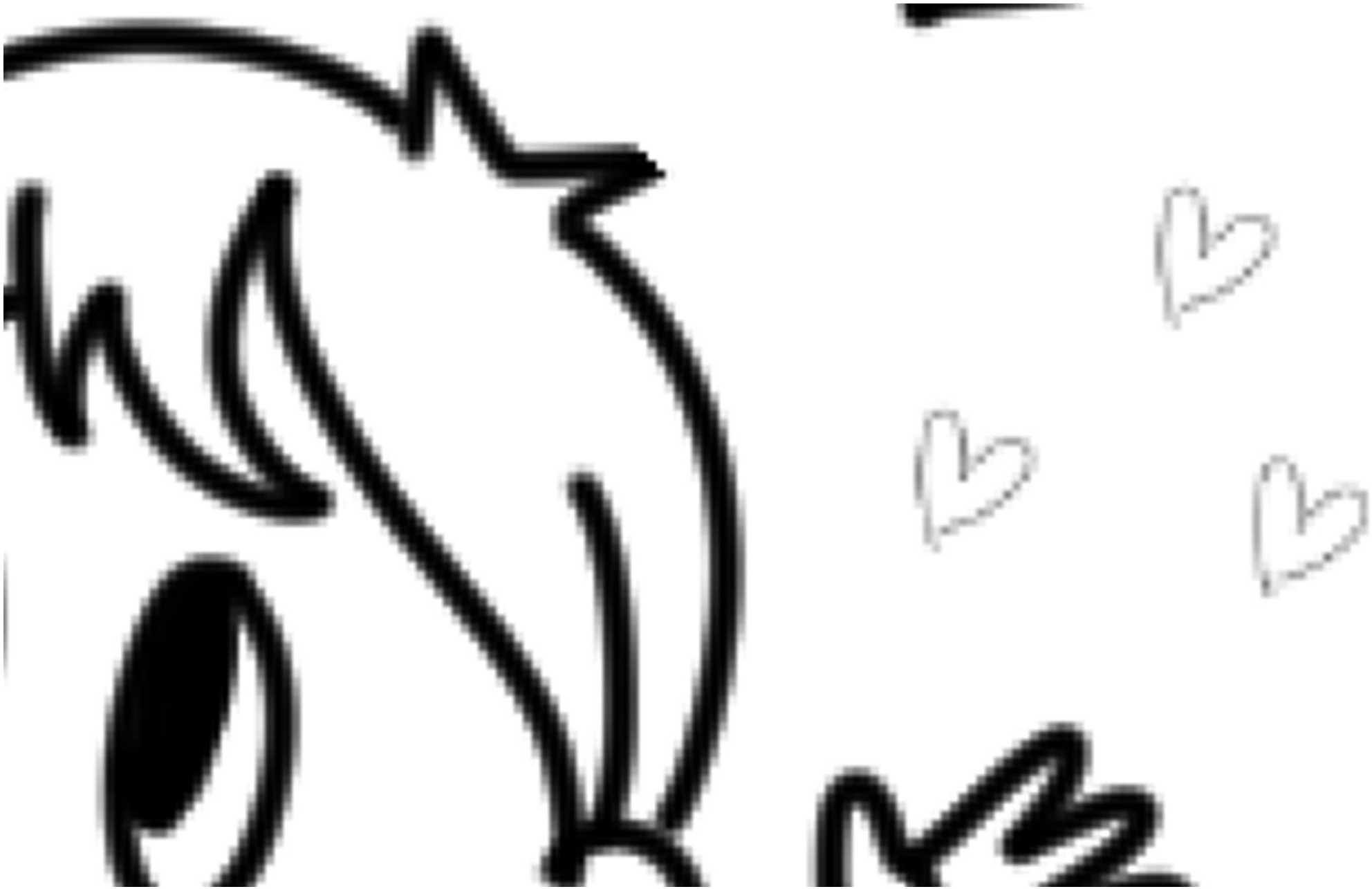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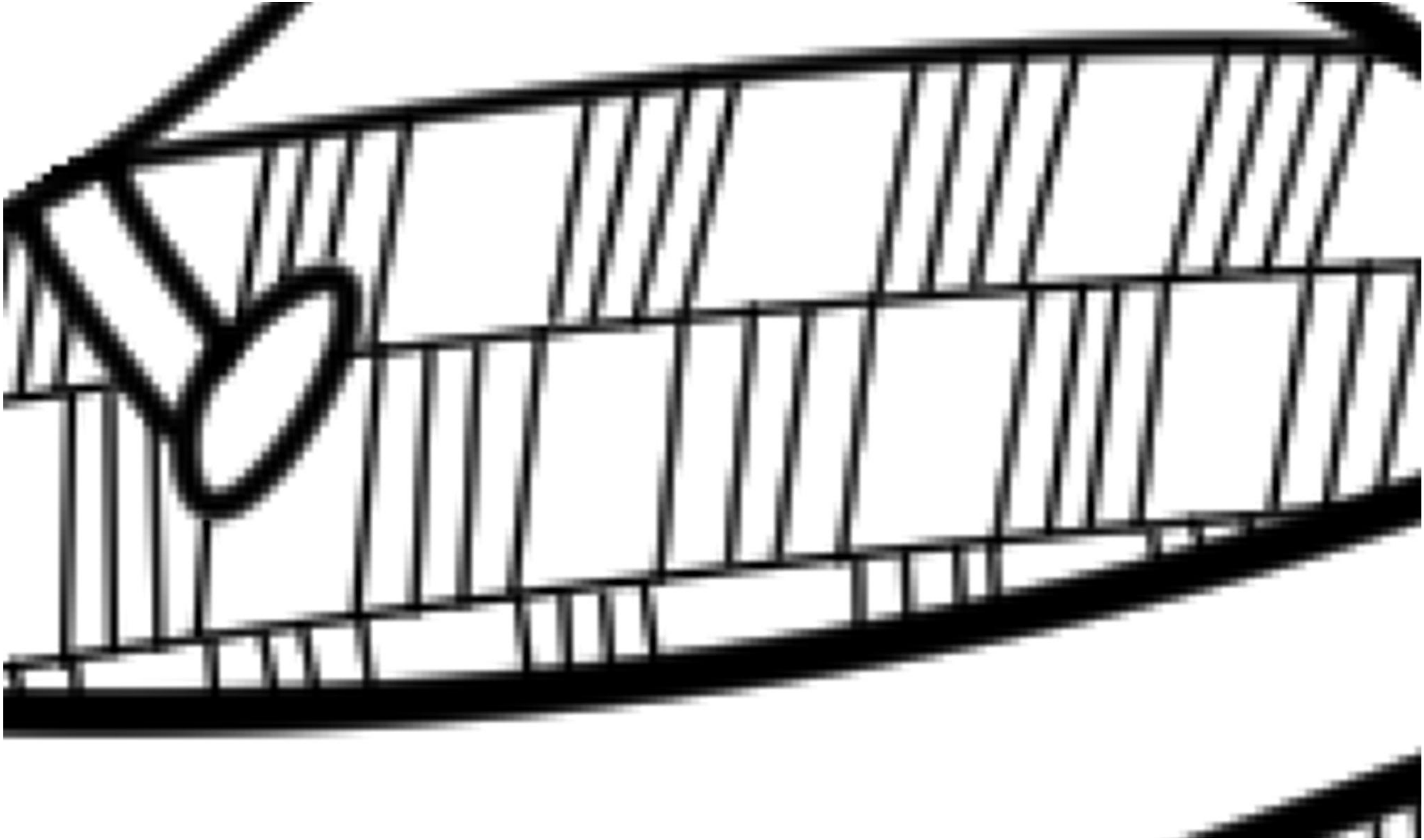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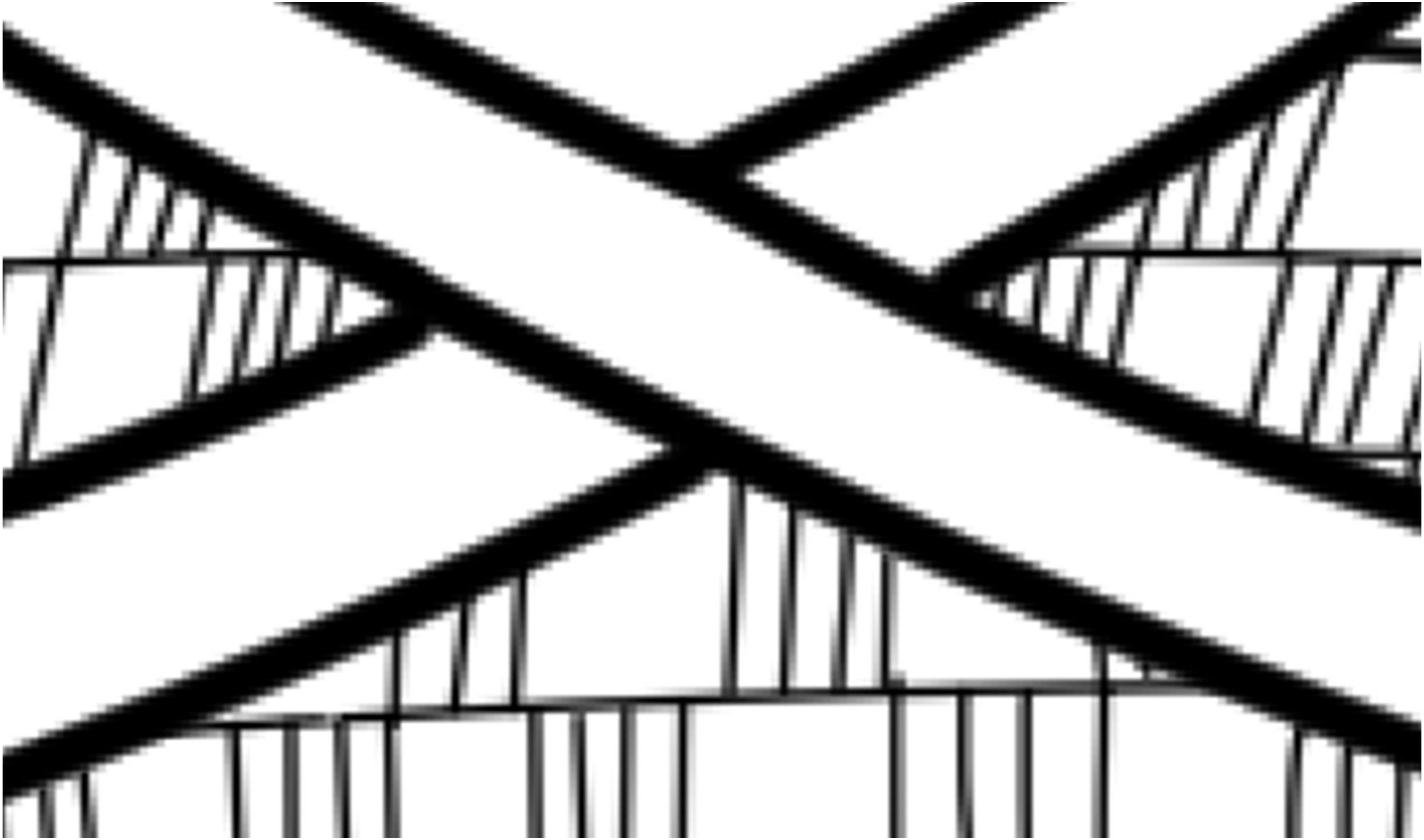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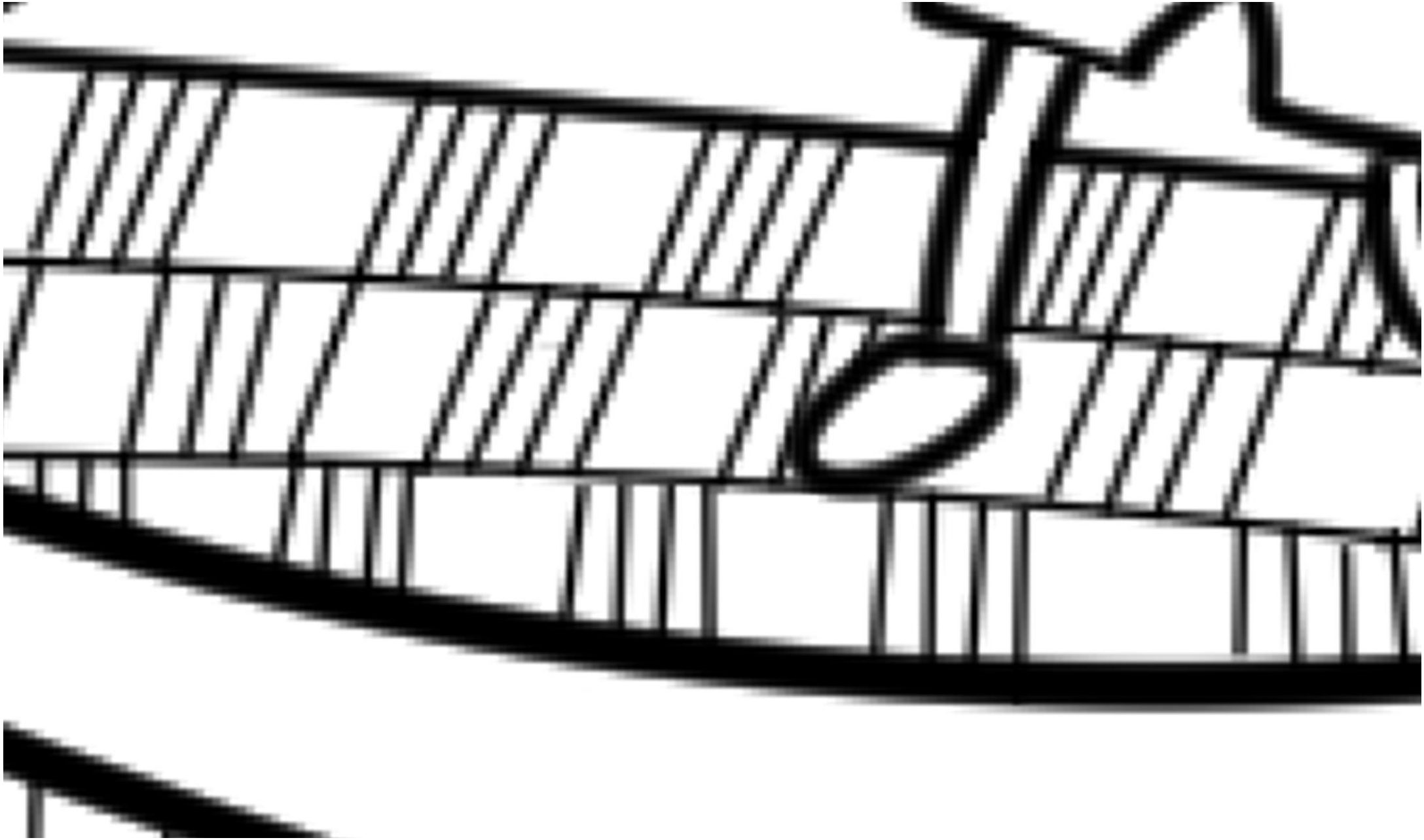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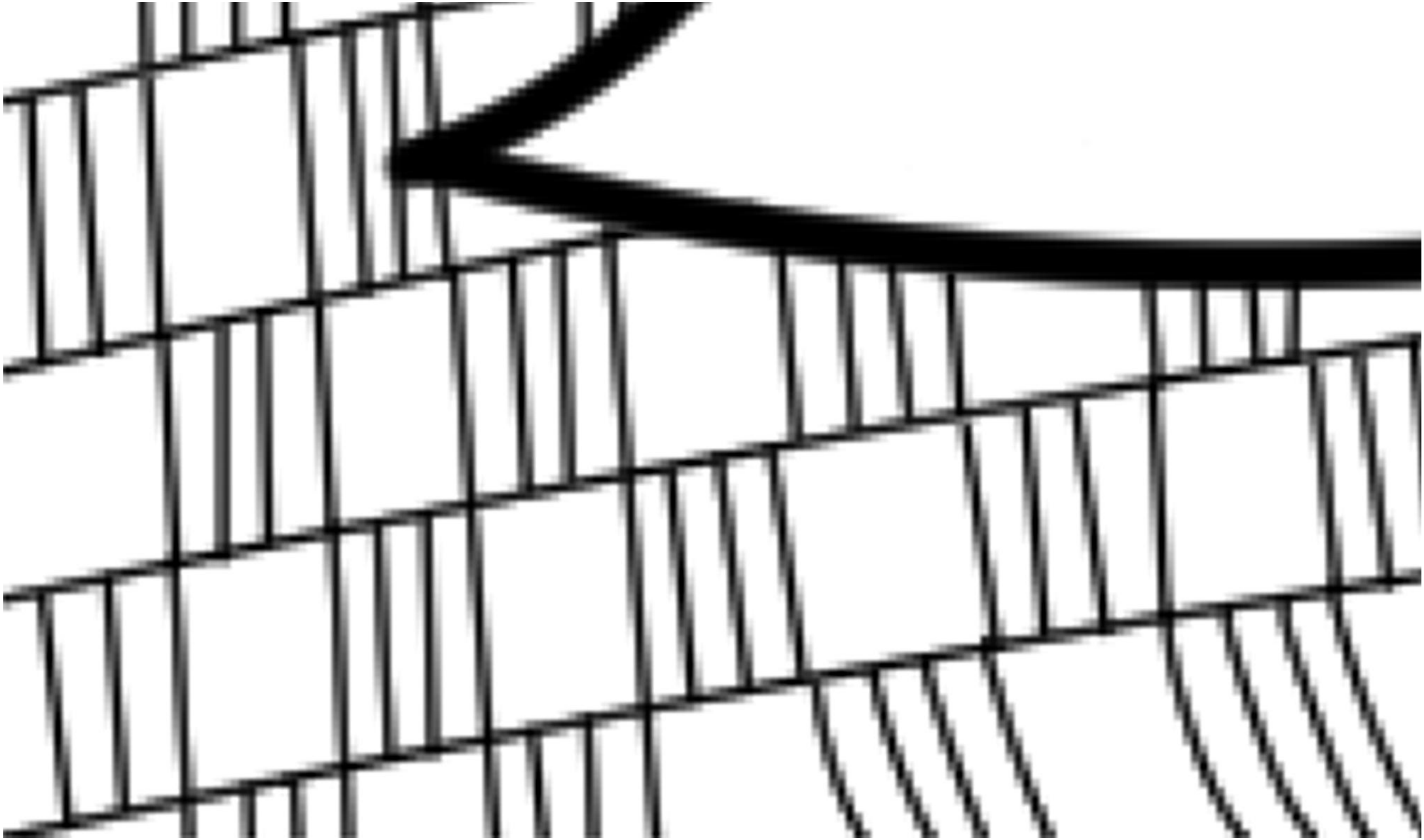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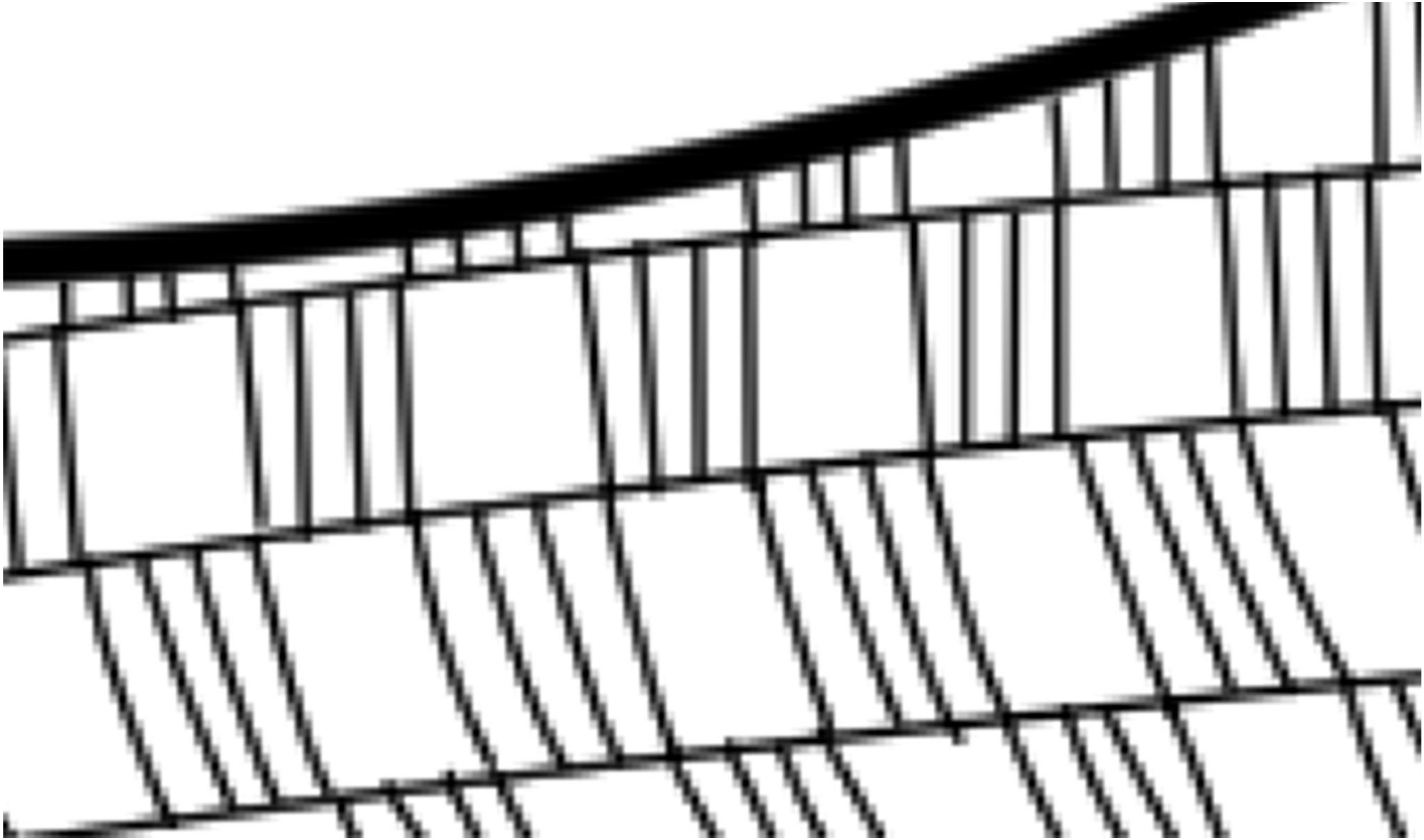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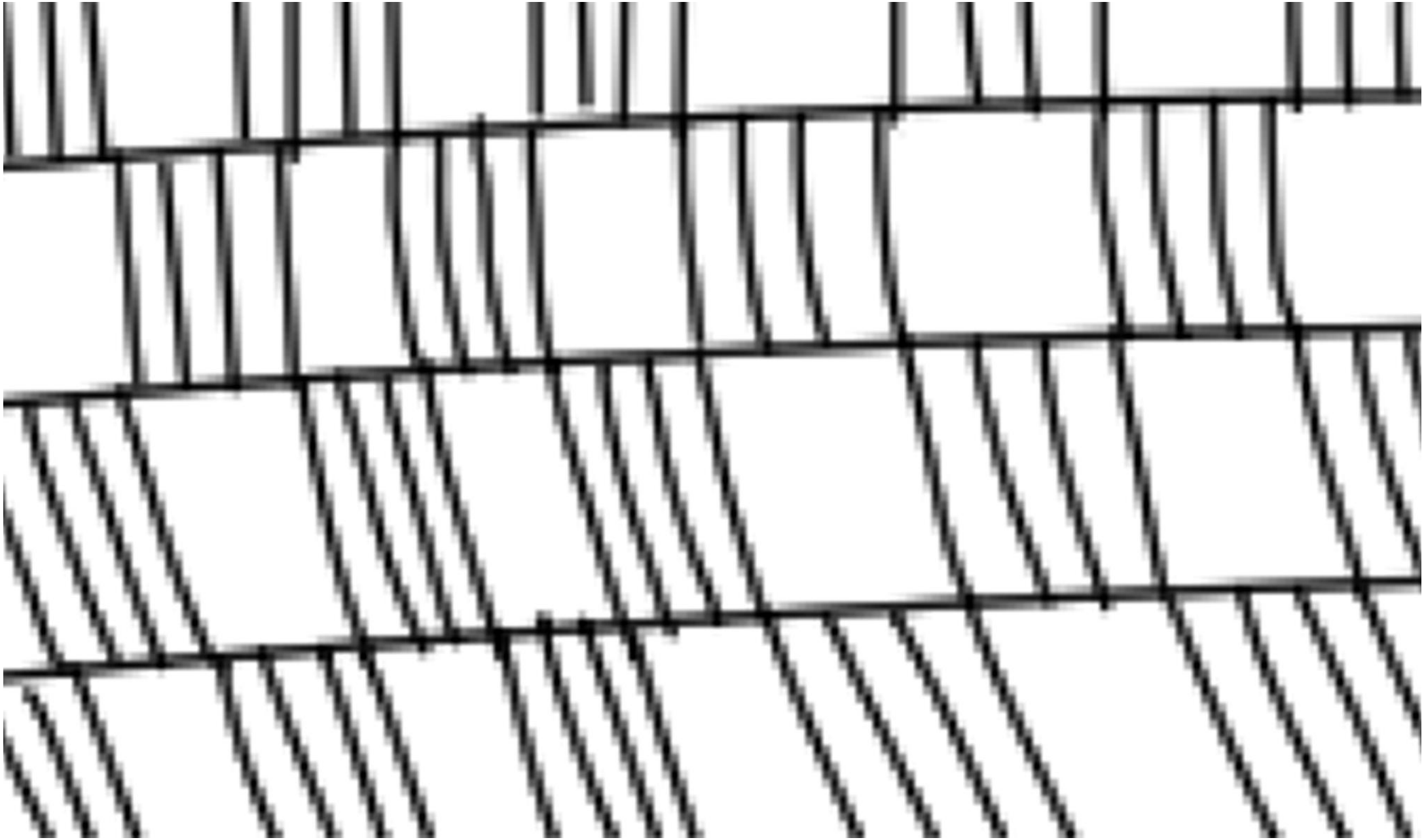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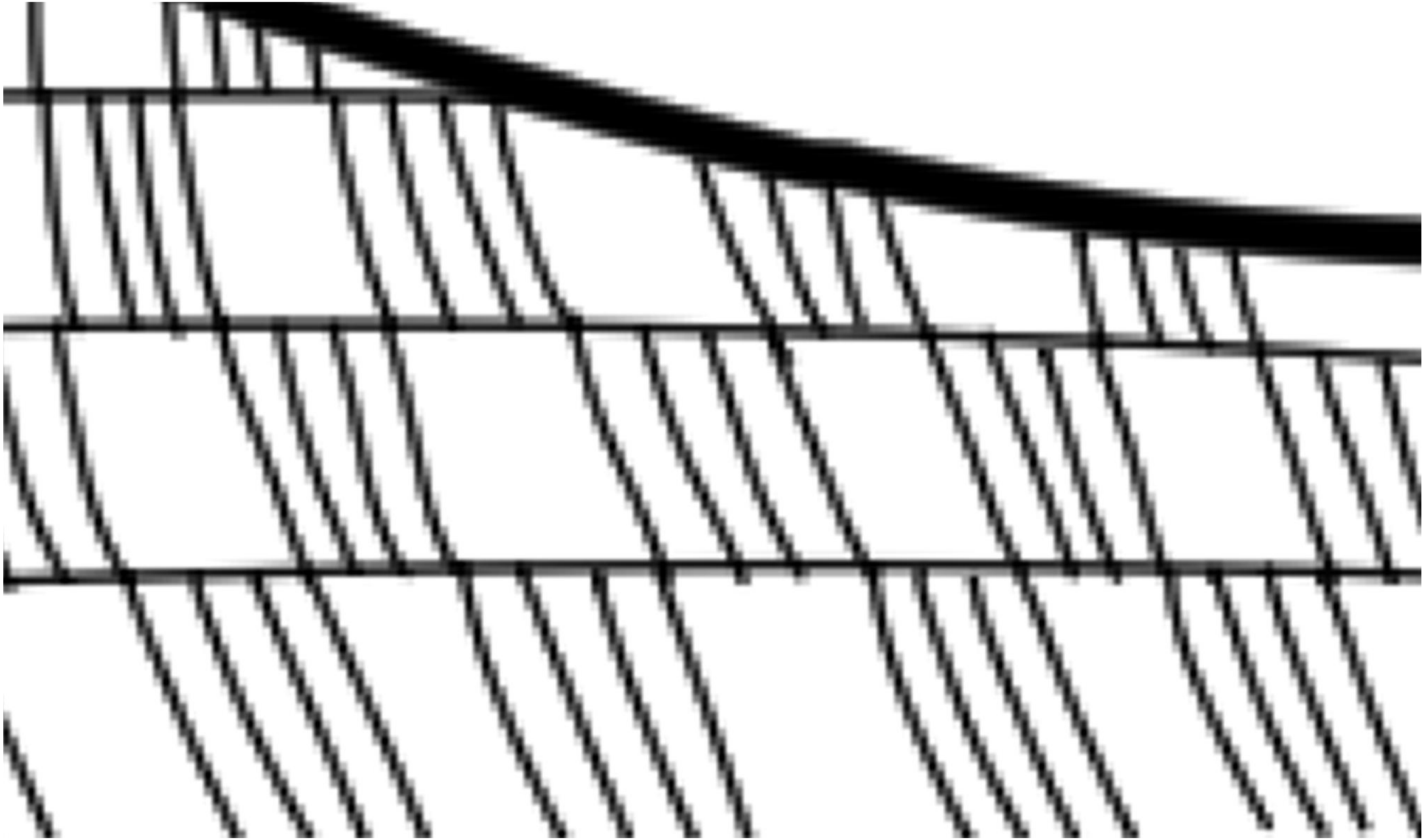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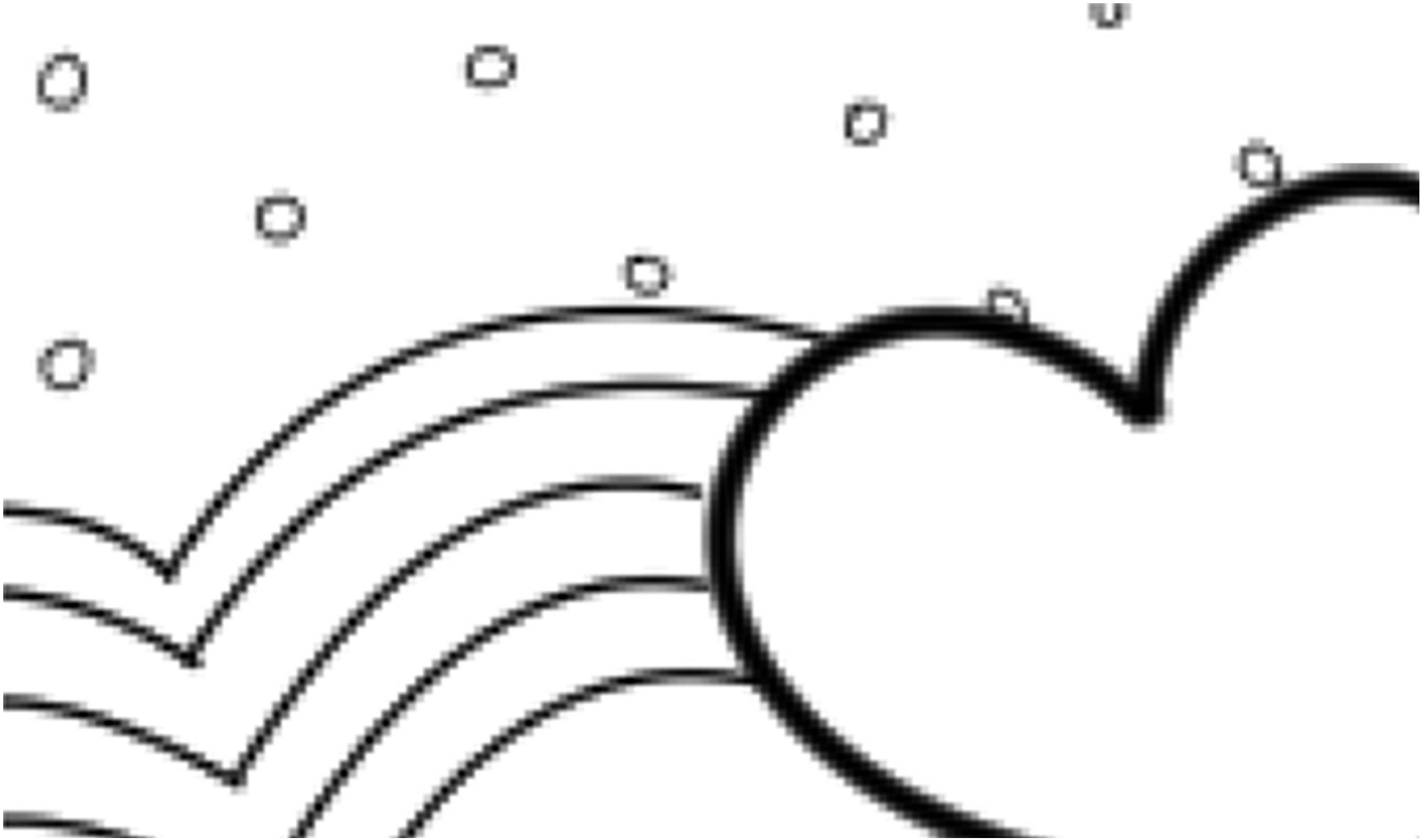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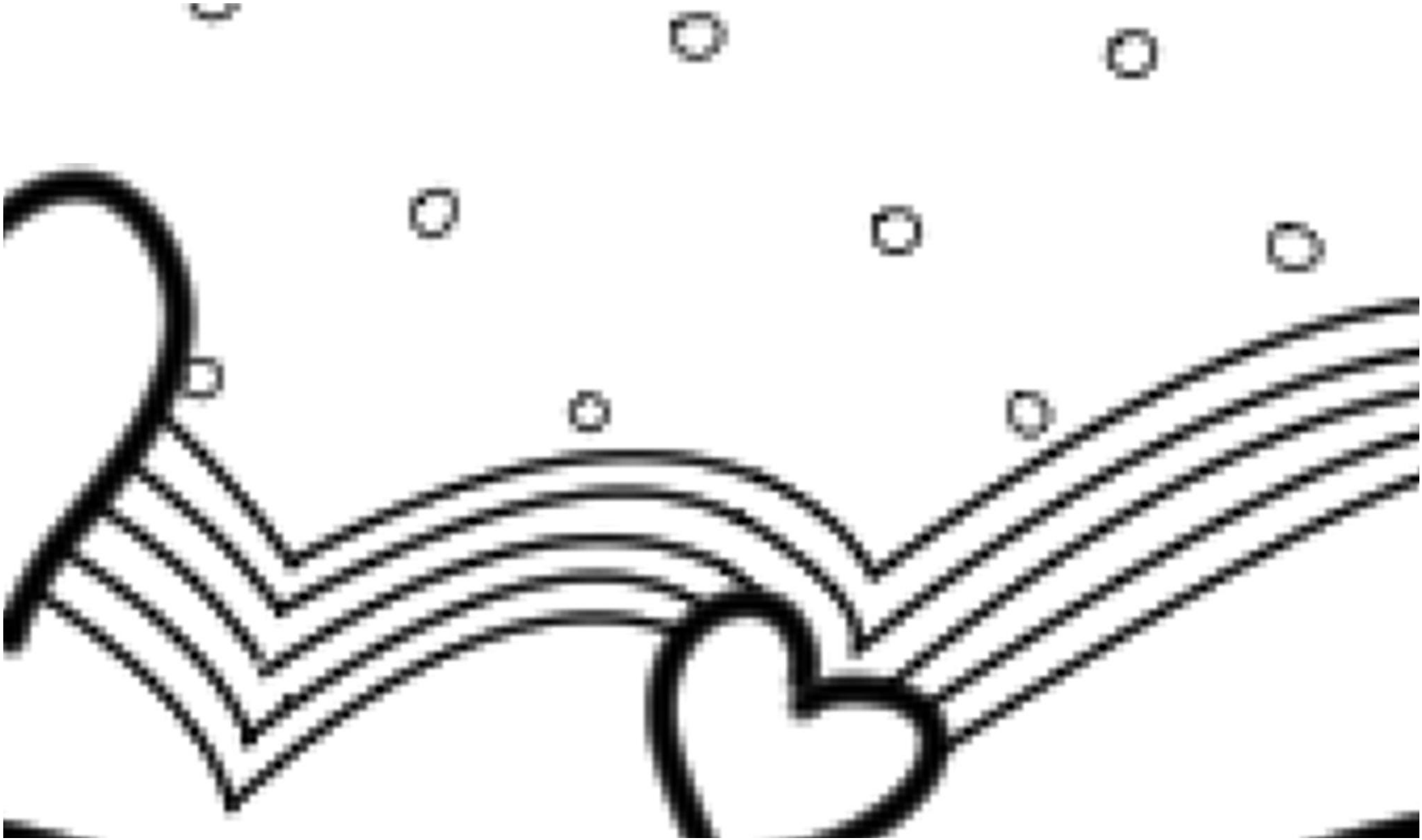
친구야



사랑해